



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이 국가 비상 관리 인증(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을 전부 획득했다고 발표

승인은 뉴욕이 비상 관리의 국가 기준을 세 차례 넘었다는 것을 기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국가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Emergency Management Accreditation Program, EMAP)의 전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뉴욕이 비상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하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프로그램이 설정한 기준을 세 번 초과 달성한 것을 기념합니다. 국가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EMAP) 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합니다. 뉴욕은 계속해서 국가 기준을 초과 달성하고 다음 점점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주 및 지방 대응팀이 함께 협력하여 뉴욕 주민과 우리 주의 자산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인증은 지난 10년간 우리 주정부 기관이 실시한 광범위한 교육과 방대한 준비 행사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 비상 관리 전문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증 프로세스는 재해 대비 및 대응을 담당하는 다양한 기관 및 조직의 인력, 자원 및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검토합니다. 인증을 획득하려면 64개의 국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국가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EMAP)의 숙련된 평가자 팀이 현장 심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합니다. 검토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영역에는 위험 식별 및 위험 평가, 운영 계획 및 절차, 사고 관리, 상호 원조 및 물류, 통신 및 경고, 교육 및 연습, 평가 및 시정 조치, 시설 및 비상 공공 정보가 포함됩니다.

뉴욕 국토안보 및 비상 서비스 사무국(New York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의 **Patrick A. Murph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Cuomo 주지사의 지도하에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긴급 대응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번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숙고해서 개발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어떤 비상 사태가 발생하든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더 안전하고 안전한 뉴욕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하이오 해밀턴 비상 관리 및 국토안보 보안청(Hamilton County, Ohio Emergency Management and Homeland Security Agency) 디렉터 겸 국가 비상 관리 인증 프로그램 위원회(EMAP Commission) 위원장인 Nick Crossl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증 획득이라는 획득하여 긴급 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한 것에 대해 뉴욕주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헌신과 리더십을 통해 직원, 시민 및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하며, 안전과 보안이 최우선 과제임을 입증했습니다."

뉴욕이 직면한 위협 환경은 미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도전적인 것 중 하나이며, 주정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비상 관리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뉴욕시의 많은 인구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로 인해 이곳은 테러리스트들의 최우선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주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뉴욕 주민들은 홍수, 허리케인, 토네이도와 같은 수많은 자연적 위협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54년부터 뉴욕은 연방 비상 및 재난을 97회 선포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취임 이후, Cuomo 주지사는 주 전역에서 비상 대응 운영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에 따라, 뉴욕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및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2015년, 주지사는 지방 정부와 주정부 기관이 사고 보고서 및 리소스 요청에서부터 자산 및 기상 조건의 실시간 추적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재해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인 뉴욕 대응(NY Responds)을 출범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재해가 발생 전후 및 발생 당시 자산과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주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뉴욕주 자산 관리 시스템(New York State Asset Management System)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Cuomo 주지사는 뉴욕 시민 준비 연합(New York's Citizen's Preparedness Corps)를 설립하여 모든 유형의 재해나 비상 사태에 대비하고, 대응이나 복구에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각 과정에서 뉴욕 주민들은 가족 비상계획 수립 방법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구비해야 할 비상용품 준비, 기타 중요한 예방 조치 등 다양한 대응 전략을 교육받습니다. 창립 이래 331,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이 교육을 이수했으며, 작년에 총 73,378명이 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ivision of Homeland Security and Emergency Services) 소개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은 테러 및 기타 인재, 천재, 위협, 화재,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이를 예방하고, 이로부터 보호하며, 대비하고, 대응하며, 이런 상황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활동을 위해 리더십, 공조,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안보 및 비상서비스 사무국\(DHSES\) 페이스북\(Facebook\) 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트위터\(Twitter\)](#)에서 [@NYSDHSES](#)를 팔로우, 또는 [인스타그램\(Instagram\)](#) 팔로우, [dhses.ny.gov](#)을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